

2021 지구촌교회

#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함!  
Sharing Jesus!



**VOL.7**  
2021 07-08

# 멜기세덱의 축복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복음성가

지96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14-24

-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 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 17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어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 왕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하여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상대는 국가 단위의 군대였고,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람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가신 318명이 있었지만,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멀리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쳐부수고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사람들을 모두 다 되찾아옵니다.
2.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멜기세덱이 나아와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아브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19절) 그의 말에 이미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 자신의 용맹함이나 용사들의 강함, 뛰어난 전략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은 이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 뿐만 아니라 소돔왕도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되찾아온 소돔의 모든 것을 돌려주면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22절) 이 고백은 조금 전 그가 멜기세덱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얻은 승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 멜기세덱처럼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요?

# 약속의 상속자



##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복음성가

지 466장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1-11

- 0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0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0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0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0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0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0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0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 0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찢개고 그 찢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찢개지 아니하였으며
-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아브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2.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확증하고자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언약을 위해 동물을 죽이고 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경우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을 때 아브람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 하나님의 약속



##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복음성가

지 403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12-21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 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 앞선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에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자세히 설명 하시면서, 약속의 '비준'이라는 특별한 절차까지 행하십니다. 원래 '비준'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이 '비준'이라는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아브람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비준'이라는 인간의 관습에 참여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비준'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흔들리고 절망하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얻도록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2. 고대 사회에서 약속의 '비준'은 반으로 쪼개진 피투성이 제물 사이를 걷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잠들게 하심으로써, 이 '비준'의 절차에 홀로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아브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언약을 성취할 의무를 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이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능력 없는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구원의 주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 사래와 하갈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복음성가

지 43장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1-14

- 0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0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0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 0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0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0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0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0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0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아브람에게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아내 사래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래는 자신을 통해 자손이 생길 수 없다고 단정짓고, 아브람에게 몸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첩이나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관습이 흔치 않게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래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래의 행동을 창세기 3장에 나온 첫 사람의 범죄와 비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한 것처럼 사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 아이를 가진 여종 하갈은 주인 사래 앞에 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화가 난 사래는 하갈을 못살게 굶니다. 구박을 견디지 못해 임신한 몸으로 도망한 하갈은 실망과 좌절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 곁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이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입니다). 하갈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갈 역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살피고, 마음을 헤아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안드레와 시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복음성가

지 493장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 35-42

-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1.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36절)이라 증거합니다. 그 말을 그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직접 듣습니다. 스승을 믿고 따르던 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말이 그들에게는 무언가 결정하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절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란 말을 언급함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열정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2.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왜 나를 따르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디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면서 자신의 거처를 그들에게 공개하십니다. 그들은 ‘그 날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와 함께 거하는 이 모습은 평범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결코 사소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41절)고 증언을 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승인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신앙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만한 주님과 나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증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 예수님의 어린시절



##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복음성가

지 259장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3-51

-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그대로 따를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 덕분에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빌립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빌립의 설득을 받고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거짓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그늘 아래에서 구약성경을 읽으며 메시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나다니엘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다니엘처럼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던 순전한 사도 나다니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포도주 기적



##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12

- 0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0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 0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 0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 0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 0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 지라
- 0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 0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0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 1.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예식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물로 바꾸신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처럼,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한 번뿐인 인생이, 온통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잃어버린 인생의 기쁨, 그것도 최고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 2. 당시 혼인 잔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목적의 결례 통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 통이 아닌 이 결례 통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례 통의 물은 손과 발을 깨끗케 할 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때는 절대로 씻겨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포도주는 우리 영혼의 죄를 능히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례 통에서 변화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 통이 아닌 결례 통에 물을 부으라고 명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 주변에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성전을 깨끗하게



##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복음성가

지 18장  
거룩한 성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3-22

-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제사에 쓸 짐승을 데려올 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용 짐승이 상처를 입어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살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잘 드리도록 만든 제도에 사람의 탐욕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꿀 때, 높은 환율을 적용하며 막대한 환전 수익을 올렸고,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는 반면, 성전에서 산 제물은 흠이 없다며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막 11:17).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에 추악함이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서기관, 바리새인 등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합당한 성전을 세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육체로 지은 새로운 성전을 선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탐욕의 사람들, 껍데기뿐인 예식으로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화가 많이 날 때, 내가 왜 화났는지 마음을 잘 살피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도 이상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니고데모의 질문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복음성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1~6

- 0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0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0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0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 0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0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1.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힌 상황이었기에 율법 전문가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

최병돈 안수집사(분당 14지구)

가정예배의 축복, 그것은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으다”이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ZOOM예배가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주일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부부는 청소년지구, 부부목장 목자와 가정사역 섬김이로 섬기고 있는데, 청소년예배와 목자모임 그리고 셀모임, 부부목장까지 줌예배를 드리고 있다보니 주일이 되면 꼼짝없이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모든 예배와 사역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생각이 나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듣곤 하는데, 큰아이는 공군통역장교로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싱가포르 국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가족 모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통화는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 되어준다.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싱가포르에 있는 둘째 아이가 ZOOM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 너무 좋은 생각에 모두들 찬성하여 그렇게 온라인 ZOOM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릴적에는 가정예배와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했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모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던터라 온라인 가정예배에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가정예배는 목요일 저녁 9시 격주로 줌 예배를 통해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인도는 아빠, 엄마, 큰아이, 작은아이 순으로 돌아가면서 섬기기로 하였고, 순서지는 지구촌교회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면서 드리게 되었다.

첫 번째 가정예배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 199장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로 이어지는 찬송 속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찬양을 부르는데 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큰 울림이 있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어머니님 생각도 나고, 아들들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도 생각나고, 더 나아가 이 부족한 부모의 믿음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가정예배는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된 내용을 서로 나누고,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며, 현재의 삶을 나누고, 각자의 삶의 적용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이젠 자녀가 아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짐을 느낄수 있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일체감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가정예배를 마치면 ZOOM예배에서 한명씩 방을 나가듯이 우리가족은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정예배야말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길 힘을 주시는 것 같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선하신 주님은 흩어진 가족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정예배를 드릴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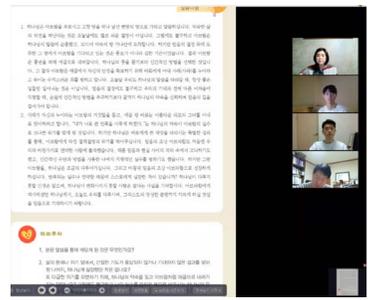
우리 가족은 꿈꾼다.

미래의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온라인에서나 현장에서나 예배로 하나가 될 것을... 그리고 찬양할 것이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가정예배는 주님이 가정에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임에 분명하다. 오늘도 나는 이번 주에 함께 드리게 될 선물 같은 가정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 4:23-24)



지구촌교회의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과 소감을 메일(gmcfamilyworship@gmail.com)로 보내주세요. 예배의 습관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부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을 위한  
아내의 축복기도

아름다운 가족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으로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남편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나는 당신을 늘 신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잠언 3: 3-6 (쉬운성경)  
사랑하는 **자녀이름** 아(아)~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  
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  
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 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이름** 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  
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  
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과 정직 성실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웃  
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는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요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  
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